

# 스승의 날 돌아왔지만... 아동학대 빙자한 '교권침해' 여전

‘학부모에 의한 피해’ 약 46%  
전면 대면 수업 전환 원인  
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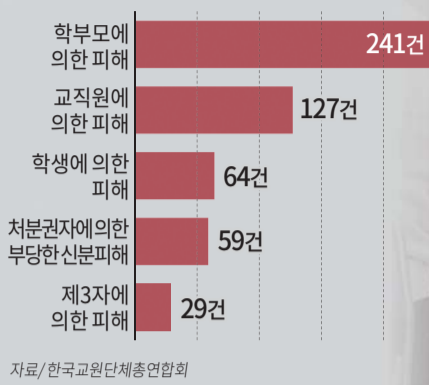
#A 고등학교 모 교사는 수업 시간에 책을 지참하지 않고 엎드려 잠만 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곤란을 겪었다.

#B 중학교에서도 수업 시작 후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는 학생의 신체 일부를 잡은 교사를 상대로 “아이가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정한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늘어나며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학부모에

2022년 교권침해 주체별 상담 건수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아져 241건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가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으며 이뤄진 교권침해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서 교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교권침해 최다 주체 ‘학부모’...코로나 이전으로 회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이었다. 2021년 437건보다 무려 83건이 증가한 수치로 최

근 6년 만에 최고치다. 주요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귀했다. 코로나19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총 513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교직원 94건)으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교직원 143건, 학부모 124건)과 2021년(교직원 155건, 학부모 148건)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직원 간 업무, 학사를 놓고 갈등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2022년에는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육박

하는 241건으로 가장 많아졌다. 이어 교직원 127건, 학생 64건, 처분권자 59건, 제3자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전면 대면 수업 전환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학대 신고’도 증가...교원의 지도 위축·회피로 이어질 우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학생 지도를 문제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교총은 “학생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125건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소송을 당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총 241건)의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교총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 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으로 나타났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 이어져 오히려 교육적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국회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련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학생 56.5% ‘디벗 사업’ 만족... 학부모는 글썽

중1 절반 이상 “공부에 도움 돼”  
학부모 반응 갈려... 반대 42.6%

서울의 학생 10명 중 6명 가까이 스마트폰 기기 휴대학습 ‘디벗 사업’에 만족하는 반면, 학부모의 약 40%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 보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올 2월 14일~3월 10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학생 2584명, 학부모 3468명을 대상으로 ‘디벗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응답자의 56.5%는 디벗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8.7%는 ‘보통이다’, 14.9%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디벗(디지털+벗)은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태블릿PC를 대여해 수업이나 공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 응답자 중 56.4%는 디벗 사업이 ‘공부나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25.7%, ‘도움이 안 된다’는 17.9%로 집계됐다. 디벗 활용 효과로 ‘수업 적극 참여’(62.8점)를, 디벗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활용 변화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58.3점)을 꼽았다. 학생들은 디벗 사업과 관련해 695건의 의견을 냈는데, 그중 215건이 ‘디벗 기기의 성능을 개선해달라’는 내

용이었다. 이어 ‘기기 사용의 과도한 사용 제한 완화’ 106건 순이었다.

학부모 중 42.6%는 디벗 사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 비율은 57.4%였다. 학부모들은 디벗 사업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증가’(63.2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디벗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학부모들은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이용 시간 제한·수업 중 관계 등 스마트기기 관리 프로그램 강화’(35.8%)를 꼽았다.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23.4%), ‘활용 교육 확대’(13.8%),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12.7%)가 그다음이었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디벗 사업의 긍정적인 면은 ‘경제적 부담 완화’(64.1점)였고, 부정적인 요소는 ‘비용·관리 책임 부담’(76.6점)이었다.

학부모들이 제출한 디벗 사업 관련 의견은 총 1364건이었다. 이 중 298건이 ‘디벗 회수 및 사업 폐지 요망’이라는 응답이었다. ‘수업 시간에만 사용 등 이용시간 제한 필요’(167건), ‘디벗 기기가 무거워 아이들이 들기에 힘들고 휴대가 불편함’(164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에 6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교육청은 2025년 디지털교과서 보급 정책 등에 따라 사업대상을 고등학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

#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10개 직종... 총 755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9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할 교육공무직원 10개 직종 총 755명을 공개 채용시스템을 통해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조리실무사가 50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특수교육실무사 87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72명 ▲교육실무사(통합) 47명 ▲특

수예듀케어강사 22명 등이다.

지역 별로는 ▲강남·서초(구) 169명 ▲강동·송파(구) 130명 ▲영등포·금천·구로(구) 76명 순으로 대규모 인원을 채용한다. 응시자 거주지제한은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공고의 세부사항 또한 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험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한다.

/이현진 기자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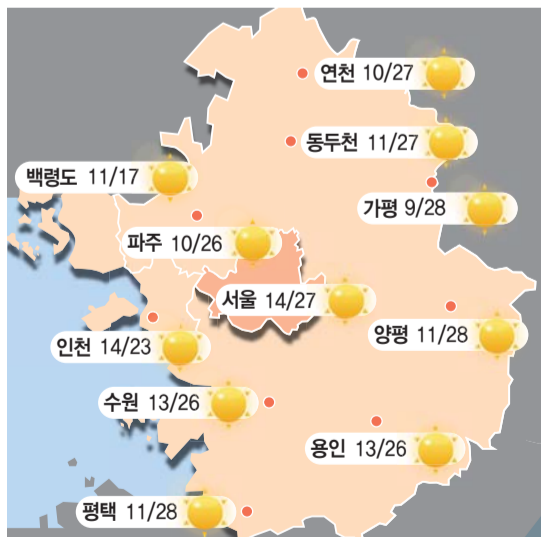
해돋이 / 05:23 | 해짐 / 19:34

5월 15일 (월)  
음력 : 3월 26일

수도권 날씨

14~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서울페스타’ 방문객 3명 중 1명 外人

행사 만족 85% 달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 2023’ 방문객의 약 3분의 1은 외국인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서울페스타의 주행사장이었던 종로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서울컬처스퀘어’ 방문자의 32%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이번 행사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행사 참여

이후 서울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의견도 전체의 76%에 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페스타 이후 계절별 대표 축제와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서울 방문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페스타 2023’은 서울관광 재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이 가진 무한한 매력을 꾸준히 관광 상품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G7서 ‘러 침략 규탄·우크라이나 지원’ 성명 발표 예정” /사진 뉴스시스  
▲백악관, 이·팔 휴전에 환영...“인명 피해 막고·안정 회복”

▲러 전투기·헬기 4대 추락...우크라이나 공격 격추 가능성 커  
▲젤렌스키 “침략자에 무기지원자 공범”...남아공 대통령과 통화



▲권도형 현직 변호인 측 “무죄 확인” /사진 뉴스시스  
▲바이든 “부채한도 논의 진행 중...이틀 내 많은 것 알게될 수도”